

통독후 독일여성노동자의 생활

평등고용에 대해 나온 EC의 지령은 그 뛰어난 내용으로 우리에게 자극을 주고 있다. 그러나 최근 유력한 EC국가 중의 하나인 독일의 근로여성을 둘러싼 상황에서는 통일 후의 새로운 문제도 발생하고 있는 것 같다. 그 일단을 소개해 보겠다.

동독은 일하는 어머니들에게 40여년간 세계에서 가장 충실하면서도 극진한 모성보호를 서비스해온 나라 중 하나였다. 여성노동인구의 90% 이상이 풀타임으로 노동을 계속할만큼 육아보장이 잘 돼있던 동베를린에서 온 두아이의 어머니는

게 밀어닥친 것은 남성보다 높은 실업률이다. 여성 실업률은 남성 44%인데 비해 56%에 달하고 있다. 곤란에 빠져있는 여성은 급속도로 축소되는 섬유산업이나 식품공장 혹은 공공서비스에 종사하는 여성들이다. 동독의 생산은 최악의 상태로 몇십만에 달하는 여성 숙련공, 생산공, 비서나 청소부가 해고사태에 직면하고 있다. 실업은 그녀들의 가정을 강타했을 뿐만 아니라 여성들까지도 고도로 복잡한 시장경제로 몰아넣은 것이다.

이리하여 독일통일의 과정에서 여성과 아이가 희생

모성보호의 모범나라 동독 통독후 실업위기 심각

말한다.

“출산하면 1년의 휴가가 있으며 어린아이를 지역의 보육소에 무료로 맡기고 직장에 복귀할 수가 있었다. 아이를 낳고 일한다는 것이 이렇게 큰 일인 줄은 상상하지도 못했다.”

동독에서는 전체 어머니의 3분의 1이 싱글페어런트(편친)라고 하는 놀라운 데이터가 자랑일 정도였다. 그녀들 대부분은 필요에 따라 이혼하지만 개중에는 좋아서 편친생활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정부는 침체일로를 걷고 있는 출생률 촉진책으로 장려금이나 특별금, 여러가지 수당 따위를 어머니에게 충분하게 지급해 동독 어머니들은 이것들을 확실하게 이용할 수가 있었기 때문이다. 편모에게는 아이가 병이 있어 집에서 간호해야 할 때 특별히 4주간의 유급휴가도 있었다.

그러나 지금 ‘모성보호의 나라’는 붕괴하고, 여성들에

되고 있다. 서독에서는 3세 이하의 아이를 위한 보육소나 유아원이 부족한 상태이고 동독에서도 질적 양적으로 모두 크게 감퇴하고 있다. 또한 임신 중절에 관한 양국의 법제도가 달라 여성도 아이도 아직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정부기관이나 의회에서도 여성스텔.의원이 적고 여성에 관한 제문제의 검토나 정책결정의 장에서조차 여성의 참여는 완전히 불충분하다.

독일경제연구소의 보고에 따르면 여성의 고용기회가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고 한다. 가정이나 육아를 지원하는 시설이 서서히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보고서는 고용의 기회균등이나 여성의 기본적수입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모성보호 서비스의 저하를 중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국제여성뉴스: Women' International Network News, Vol.17, No.1, 1991에서)